

거창군 협업형 마을만들기 실천전략 연구

오형은

(주)지역활성화센터

A Study of Practical Strategies for Cooperative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in Geochang

Oh, Hyung-Eun

Region Activator Center Co., Ltd.

ABSTRACT

Prior hardware-centered rural 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ed top-down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via the loc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central government agency policies. To improve this, software-centered projects have been promoted since 2000. With central agency-led rural development projects changing into local government-led ones,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has been built per village. Although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projects appear to have implemented a bottom-up development currently, the top-down development procedures being facilitated by the intervention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have not disappeared.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sis is to effectively perform bottom-up development methods that go one step further from the current process of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As the research site, this thesis selected Geochang, which has difficulties in being steadily maintained and operated despite the development of various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projects. Subsequently, it determined the current status and substantial analysis of a project of the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in Geochang through 1:1 interviews with civil servants in charge of administration as well as conducted a prior study on rural resident awareness of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through a survey of village head member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rural residents. Based on these data, a 10 times-round table conference was held under the participation of pertinent civil servants, professionals and rural residents to select practical strategies for cooperative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in Geochang as five key areas: local food, culture & welfare, rural villages, community development, and urban and rural interchange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ject of building villages must be implemented by establishing steadfast administrative co-operation systems, strengthening rural residents' participation capacities and supporting professionals' systemic integrated operation and maintenance. By doing so, this research thesis sought to determine practical strategies in the cooperative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in Geochang. It is expected that bottom-up development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will be built and introduced in each rural community in the future.

Key Words: The Development of Bottom-up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Round Table, Forming Partnerships

Corresponding author: Hyung-Eun Oh, Region Activator Center Co., Ltd. Seoul 137-896, Korea. Tel.: +82-2-714-9024, E-mail: frogoh5@gmail.net

국문초록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하향식 농촌개발사업을 개선하고자 2000년대부터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지향하였고, 지자체 주도의 마을만들기가 행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마을만들기 사업들 역시 외형적으로는 상향식 개발구조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행정기관의 관여 아래 추진되는 하향식 추진절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의 마을만들기 진행과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향식 개발방식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여러 사람이 같은 자격으로 모여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형 마을만들기’를 제시한다. 연구대상지는 거창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정 관련 공무원과 1:1 인터뷰를 통해 현재 거창군 마을만들기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알아보고, 이장단 설문조사와 일반주민 심층면담을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인식을 선행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의 참석 하의 10회에 걸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여 거창군의 협업형 마을만들기 실천전략을 로컬푸드, 문화·복지, 귀농·귀촌, 마을개발, 도농교류의 5가지 핵심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는 행정의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주민의 참여역량 강화 노력, 전문가의 체계적인 통합운영관리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거창군만의 협업형 마을만들기 실천전략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각 농촌지역에서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고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상향식 마을만들기, 라운드 테이블, 파트너십 형성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행정이 주체가 되어 국토 전역을 가꾸어왔다.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개발사업은 주민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시스템과 대중 인식이 뿌리내리게 되는 부정적 측면을 낳았다. 특히 중앙부처의 정책이 지자체를 거쳐 지역과 마을로 내려와 시행되는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시행구조는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현재까지도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Kim, 2000; Song, 2006).

최근 이러한 하향식 개발방식에 대한 변화와 개선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부응한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 ‘마을만들기’이다.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스스로 활력 있고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총체적인 과정이다(Kim, 2009; Shin, 2011). 이는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복원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의식 개선, 유대감 형성을 통해 주민들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여 실제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의견을 모으는 발전된 방법론이다(Won, 2013). 특히 하향식 사업시행 구조에서 오는 획일화 된 지역개발 형태에 반하여 상향식 개발방식은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지역개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결국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성과가 창

출되지 못하거나 창출된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마을만들기이다. 그러나 최근 유행처럼 많은 지자체가 마을만들기라는 이름의 사업을 무분별하게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주도형 마을만들기의 각축장이 되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향식 개발의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과거의 관행에서 한 단계 성장하여 변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서 말한 그동안의 행정 주도의 사업시행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해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마을만들기 과정을 개선하여 더 나은 방법 발굴과 함께 그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마을만들기의 선행연구는 마을만들기를 마을단위의 사업으로 인식한 양적·기술적 접근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마을만들기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마을만들기의 문제와 한계를 문헌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상향식 개발방식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1:1 면담 및 인터뷰,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포함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한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대상지 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상향식 마을만들기의 실질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 전문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최종적으로 각 농촌지역에서 상향식의 협업형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고,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 용어의 정의 및 이론적 고찰

1) 협업형 마을만들기

우리나라 농촌 마을만들기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시대적 요구와 농촌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시대 적응기에 접어들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사업들이 지자체 주도의 형태로 전환됨과 함께 농촌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농촌개발이 마을단위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정보화 시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외형적으로 보면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Seo, 2013), 여전히 행정기관의 관여 아래 추진되는 하향식 추진절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Figure 1 참조).

최근에 와서야 지금까지의 마을만들기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주민참여와 주민주도가 중요한 정책 기조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Seo(2006)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하향식 사업추진, 이해대립에 의한 갈등, 인력부족, 소득증대효과 미흡 등이 발생함을 지적하였고, Moon(2012)은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되고 중복되고 있음을 문제시 하였다. 또한 Song(2006)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시·군이 집행하는 사업에서 마을주민은 수혜자일 뿐, 그 기획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단순 주민참여를 지향하는 사업방식과 획일적인 사업 진행방식은 주민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마을만들기 정책에 따른 하드웨어의 정비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드웨어를 운영하고 관리할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이 놓인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주민의 삶에 본질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행정의 역할과 지역 주민의 주체적 역량육성이 핵심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다. 기존의 행정중심의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마을만들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행정과 전문가 마을주민이 동시에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며, 이를 '협업형 마을만들기'라 칭하고자 한다. 사전적 의미로 '협업'은 '같은 종류의 작업을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공동(共同)으로 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여러 사람이 같은 자격으로 모여 마을만들기에 힘을 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행정기관의 관여 아래 추진되었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방식에서 나타난 이해관계 갈등, 획일적인 사업결과, 주민역량 약화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협업형 마을만들기 실천전략 수립

지금까지의 마을만들기가 하드웨어에 치중하여 나타난 문제에 대해 Lee(2009)는 농촌지역의 개발은 지역역량 강화나 공동체 활성화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는 농촌개발정책으로 크게 4개의 핵심 축을 제시하고 있는데(Oh, 2008), 그 중 LEADER(Liaisons Entre Actions de Developement de l' Economie Rurale: 농촌경제의 개발을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상향식 지역개발 전략을 매우 중요하게 제시하였다(Table 1 참조). Park(2002)는 LEADER 프로그램이 소단위 지역까지 종합적 계획 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높은 농촌개발전략이라 평가하였다.

LEADER 프로그램은 기존의 농촌개발방식과 달리 지역적 접근, 상향식 접근, 파트너십과 참여, 통합적 접근, 지역간 네트워크와 협력을 원칙으로 하여(Park, 2002), 주민의 계획역량을 증대시켜준 EU의 상향식 계획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농촌 마을만들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EU의 LEADER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역 내 파트너십과 조직을 결성하게 하고, 소규모 지역별 독자적인 발전계획의 상향식 수립을 바탕으로 농업 이외의 다양한 부문과 통합발전을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D(2006)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의 키워드로 농촌지역의 경쟁력, 지역자원의 가치화, 미활용 자원의 개발을 꼽았다. 즉, 새로운 농촌개발은 다차원적이고 다중-주체적(multi-actor)이며, 다면적인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농촌정책은 농촌지역의 역량구축, 지역사회 주도권,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자조적 농촌 지역 발전임을 강조한다(Table 2 참조). 핵심주체는 중앙정부와 농민만이 아닌 국가, 지역, 지방에 해당하는 다차원적 정부와 공공, 민간, NGO와 같은 다양한 로컬 이해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Lee(2009)은 농촌지역개발의 동향연구에서 농촌지역개발은 지역주민과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행정, 전문가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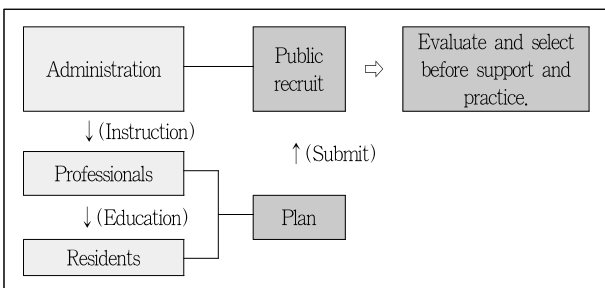


Figure 1. Process and procedures of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Table 1. Strategy guideline on the EU Rural Development

Section		Core support activities
No. 1 Axial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se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stering dynamic entrepreneurship · Improving eco-friendly rural and forestry industries · Reorganizing rural sectors
No. 2 Axial	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the countrys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erving rural environments · Promoting the contribution to eco-friendly agriculture. · Facilitating rural balance development
No. 3 Axial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and encouraging diversification of the rural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stering small-sized companies · Facilitating economic activities in extended rural economy and increasing employment rates · Innovating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expanding their supply
No. 4 Axial	Adopting the strategies of bottom-up rural development (LEADER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ming rural partnership · Strengthening civil partnership · Improving rural governance

Table 2. OECD's New Rural Paradigm

Section	Old approach	New approach
Objectives	Equalisation, farm income, farm competitiveness	Competitiveness of rural areas, valorisation of local assets, exploitation of unused resources
Key target sector	Agriculture	Various sectors of rural economies (ex. rural tourism, manufacturing, ICT industry, etc.)
Main tools	Subsidies	Investments
Key actors	National governments, farmers	All levels of government (supranational, national, regional and local), various local stakeholders (public, private, NGOs)

전국 어느 마을이든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사회·문화적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고,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협업을 통해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를 기반으로 한 농촌마을만들기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기관은 마을만들기의 통합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은 인적 인프라 육성교육을 통한 참여역량을 강화하며, 관련 전문가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속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실천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거창군으로 선정하고자 한다(Figure 2 참조). 거창군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로 지역개발 현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분야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거창군의 마을만들기 현황을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거창읍과 11개의 행정면에서 103개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다(Table 3 참조). 가장 많이 진행된 마을만들기 사업은 '색깔있는 마을만들기'가 25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맞춤형 귀농마을'이 12건,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10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과정에 협력할 주민 자치활동가들이 많아 본 연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거창군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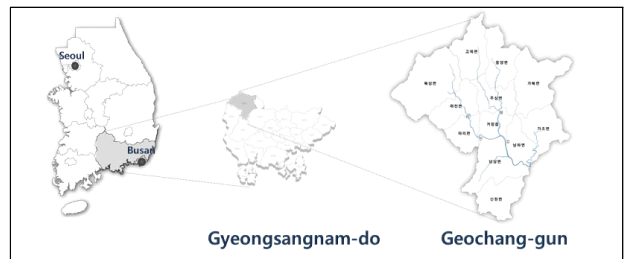


Figure 2. Place to be studied

Table 3. The current status of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of Geochang(as of 2013)

Project names	Project numbers
Mountain eco-villages	3
Tailored return rural villages	12
Tailored community business in Geochang	2
Rural health lifelong village	10
Information village	2
Community business	5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of unique	25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8
Rural downtown development project	7
Others	29
Total	103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거창군 마을만들기 현황을 분석하고, 추진과정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장조사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거창 마을만들기의 필요성과 현황, 추진과정과 실천전략 모색 등에 관하여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택하였다. 라운드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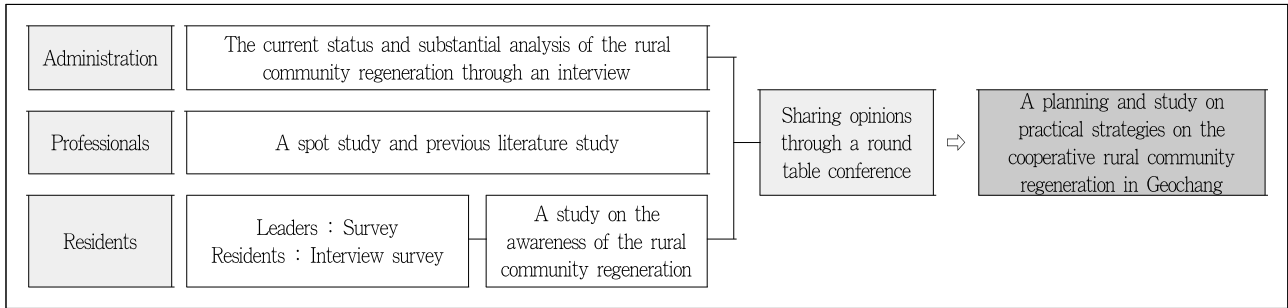


Figure 3. Research models

은 원탁회의라고도 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집단의 사전 조사단계와 연구단계를 거쳐, 서로의 내용공유를 위한 발표단계, 의견을 나누는 토론단계, 이에 대한 의견합의단계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Figure 3 참조).

본 연구의 라운드 테이블 조사단계 연구방법으로 거창군 주민과 관련 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거창군 주민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전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거창군 266개 행정리 이장단을 중심으로 2013년 10월에 지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Table 4 참조).

Table 4. Survey design and measuring method

Division	Content	Measuring method
Population-society status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number of returning to the farm households etc.	Direct method
Agriculture activity status	Main speciality, income activity, agricultural income level	
Village pride	Natural habitat, history and culture, economy, community resources	
Collocated operating experience program	Educational campaign program, health promotion program, children's education program, welfare program, income activity program, community activity programs	Nominal scale
Joint business necessary	-	
Preferred promotion project	Activities related to local food	
	Activities related to family community	
	Activities related to the cities and the exchange	
	Activities related to become a farmer homecoming	
	Convenience business	
Level of village development at present	-	Direct method
Business opinion by village	-	

그 중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264개의 응답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마을의 리더가 아닌 일반 마을주민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거창군 내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거창읍을 비롯한 11개의 면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1:1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면담내용은 크게 생활여건, 귀농귀촌, 마을만들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면담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여건 면담내용으로는 교류활동, 생활서비스, 문화체육, 경제, 교육 관련 면담을 하였고, 귀농귀촌 면담내용으로는 주민과 귀농귀촌인에 따라 각각의 인식을 들어보았다. 마을만들기에 관해서는 인식, 사업, 요구 및 수요, 비전에 대해 집중적인 면담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마을만들기의 운영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3년 12월에 거창군청(행정과, 창조경제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건설과)의 계장급 담당자 6명과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촌활력과)의 관련 팀장 2명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거창군청과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재 각 관련 담당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들과 현재 운영실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인터뷰 하였다.

사전조사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거창군 수를 비롯한 거창군 총괄계획가, 관련 공무원 25인, 현장활동가 10인, 전문연구원 5인이 참석하여 사전조사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 합의단계를 거쳐 거창군의 협업형 마을만들기를 계획하고 실천전략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참석 하에 진행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포함한 10회의 라운드 테이블 과정을 통해 거창군의 협업형 마을만들기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Figure 4 참조).

III. 결과 및 고찰

1. 사전조사

거창군 행정리 이장단을 중심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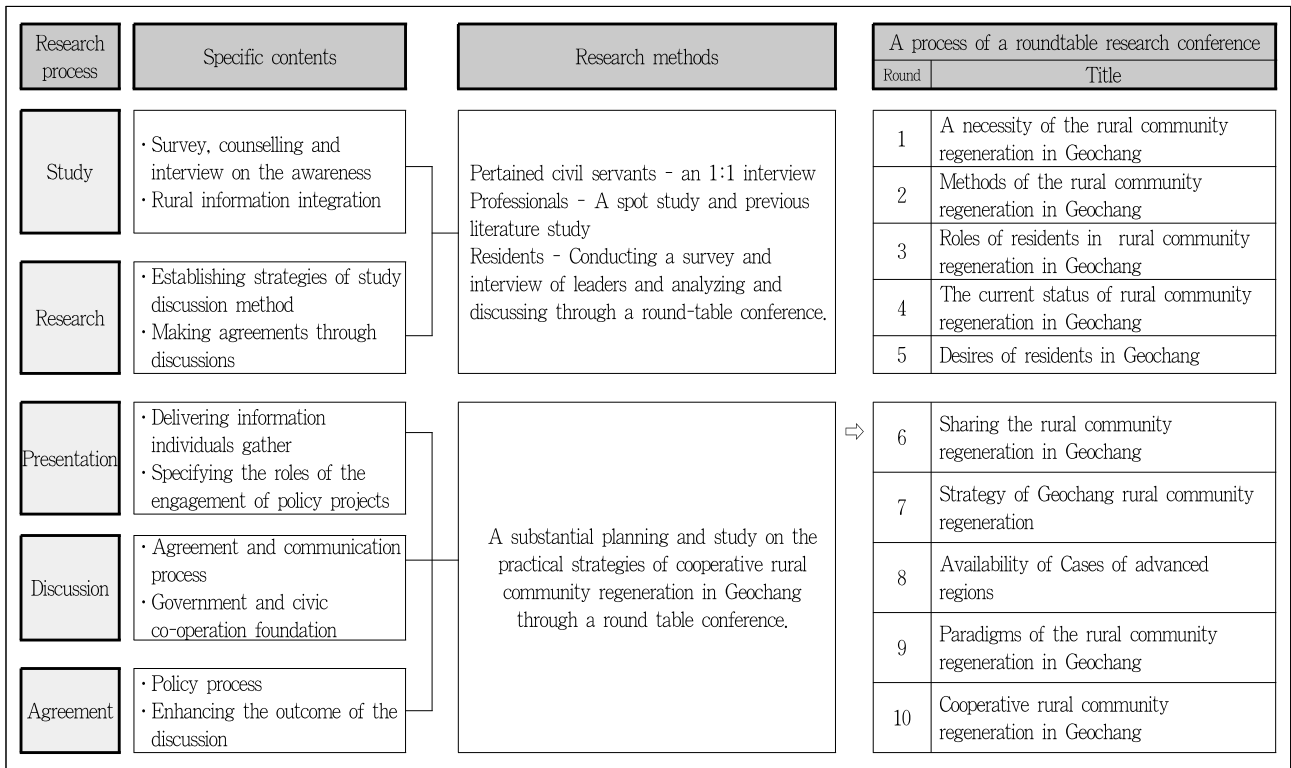


Figure 4. A process and methods of a roundtable research

한 결과, 우선 본인의 마을 발전정도에 대해 '정체되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과반수인 53%(116명)에 달했으며, '쇠퇴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0%(43명)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44%(78명)가 '필요없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거창군의 마을주민들은 대부분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간의 마을사업이 마을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외부전문가나 마을 내 중장년층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비춰져 고령화된 마을상황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라운드 테이블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사업 및 마을만들기의 방법과 방향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마을공동사업을 한다면 선호하는 추진사업을 조사한 결과, '농산물 판매·유통(65명)'과 '농촌관광을 위한 체험활동 사업(65명)' 부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57명)', '치안, 안전(54명)', '이동수단 및 편의시설(47명)'과 같은 문화·복지 개발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마련(53명)'도 높은 선호도를 보여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이와 같은 선호추진사업을 종합한 거창군의 마을만들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Table 5 참조).

다음으로 일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결과, 대부

분의 마을주민들은 거창군 마을만들기에 대해 '관심없다'라는 의견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주로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또 '앞장 설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결국 거창군에서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착 마을만들기의 주체인 마을주민들은 이에 대한 참여의지나 추진력이 부족하며, 리더육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향후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지역의 핵심리더를 선정하여 마을만들기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인재육성 및 교육과 같은 방안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거창군청 관련 담당자와 농업기술센터 관련 담당자와 인터뷰 결과, 거창군의 마을만들기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추진 후 후속지원체계의 미비, 둘째, 마을만들기 사업 상위 총괄·조정기구의 부재, 셋째,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이해도 부족, 넷째, 중앙부처 사업방침에 따라 마을의 조건을 바꾸는 하향식 사업추진의 잔재, 다섯째, 타 실과에서 추진 중인 유사사업 간 정보 및 성과 공유 부재, 여섯째, 거창군 관광 수요 대비 지역·마을 내 관광연계 소득의 저조함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라운드테이블 분석

앞선 사전 조사단계를 바탕으로 거창군 협업형 마을만들기

Table 5. The survey results

Division		Person (frequency)
Level of village development at present (nonresponse =45)	Growing	60(27%)
	Sluggish	116(53%)
	Be in decay	43(20%)
Joint business necessary (nonresponse =86)	Need	100(56%)
	Noy need	78(44%)
Preferred promotion project(plural response)	Agricultural production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29
	Agricultural production of the cooperative facilities	27
	Agricultural processing activities	18
	Agricultural processing facilities	23
	Agricultural sale(distribution)	65
	Agricultural communal marketing	25
	Education of resident(lifelong study)	40
	Culture and sports and leisure activities	47
	Children's education and childcare	5
	Community activities for the conservation and succession	19
	Senior citizens or physically handicapped and multicultural welfare	57
	Experience for rural tourism	65
	Accommodation and lodge	17
	Localfood	13
	The village festival	18
	Non-farm activities such as crafts and souvenir	14
	Rental house for migrants returning to farm and rural	53
	Residential environment composition for artist	18
	Outsider bid activities link with education	21
	Transfer means convenience(public traffic, pedestrian walkways, etc.)	47
Security and safety	54	
Convenience facilities(hair salons, supermarket, etc)	39	

N=264

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과정은 Figure 3과 같이 총 10회로 계획하였다. 1회부터 5회까지는 앞선 주민 설문조사 및 면담과 관련된 공무원의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거창군 마을만들기의 문제점 분석, 마을만들기 방향과 방법,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 현재 거창군 마을만들기의 추진현황, 주민의 선호 및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6회차에는 거창군수의 참석 하에 1회부터 5회까지의 논의사항을 중간 점검하였고, 7회부터 10회까지는 앞선 회차들의 의견을 토대로 거창군의 마을만들

Table 6. Round table outline

Division	Round	Holding place	Attendance
Study, research stage	1	Geochang council chamber	15(mayor, professionals, residents)
	2	희망마을 창조발전소 in Geochang	10(residents, professionals)
	3	희망마을 창조발전소 in Geochang	12(residents, professionals)
	4	희망마을 창조발전소 in Geochang	10(residents, professionals)
	5	희망마을 창조발전소 in Geochang	10(residents, professionals)
Presentation, discussion, agreement stage	6	Geochang council chamber	48(mayor, professionals, residents)
	7	Geochang council chamber	28(professionals, residents)
	8	Jinan and Wanju	25(Professionals, residents)
	9	Geochang council chamber	15(mayor, professionals, residents)
	10	Geochang council chamber	50(mayor, professionals, residents)

기에 대한 본격적인 계획과 유사 지자체 인터뷰를 진행하여 거창군의 협업형 마을만들기 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1회부터 5회까지의 과정을 조사·연구 단계라 명하고, 6회부터 10회까지 과정을 발표·토론·합의 단계라 명하기로 한다(Table 6 참조). 각 라운드 테이블 과정의 세부운영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연구 단계

우선 조사·연구 단계에 해당하는 1회차는 거창군의 마을만들기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거창군 관련 행정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거창군은 현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수립에 따른 주민주도형 발전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장단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마을발전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을공동사업에 대해서는 44% 이상이 '필요없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지역주민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마을만들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앞서 사전조사에서 분석한 내용과 같이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이 고령화된 마을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불가능할 것이라 인식하는 상황을 마을만들기를 통해 고령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거창군 창조정책과 담당공무원은 “부서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방식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적이며, 실효성 있는 거창형 마을만들기 모델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관련 전문가는 “새로운 정

부정책에 발빠른 대응을 위한 앞서 가는 정책시범이 필요하다”고 하여 거창군만의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실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2회차는 1회차에서 논의했던 거창형 마을만들기의 문제점을 토대로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구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각 실과별로 추진하던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합적으로 계획·추진·운영·관리 하기 위한 구조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마을만들기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분야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앞선 이장단 설문조사의 선호하는 마을공동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거창군 마을만들기 전략분야를 로컬푸드, 문화·복지, 귀농·귀촌, 마을개발, 도농교류 총 5가지로 설정하였고, 이를 어떻게 연계 및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3회차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실습을 통해 거창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 마을의 핵심인물(Opinion Leader)을 찾고자 하였다. 이들 핵심인물은 향후 행정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주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보의 송수신, 세미나, 토론회, 교류지원 등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논의하였다.

4회차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재 거창군의 마을만들기 추진현황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거창군은 약 100여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개별 시행됨으로 인해 성공사례로 인식되는 마을이 부채환 실정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사업선정 및 운영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사업선정기준과 지원·관리 기준에 대한 행정의 체계적인 실행기준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5회차는 사전 거창주민의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거창주민이 바라는 거창군 마을만들기에 대해 토론하였다. 거창주민의 1:1 면담 결과, 거창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위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이를 통해 좀 더 편안한 삶터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주체들 간 마을만들기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고, 과도한 사업비의 투자보다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더 큰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로써 총 다섯 번에 걸친 조사·연구 단계를 마무리하였다. 조사·연구 단계는 주로 사전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담당자와 전문가 그리고 마을주민이 함께 논쟁점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전 조사내용을 미리 전달하고, 이를 토론회으로 인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마을주민들과 이장단의 의견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Nam(2000)은 라

운드테이블 방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연구에서 가능한 참석자 모두 해당 주제에 대해 사전에 숙지해야 하는 것이 라운드테이블 제도가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연구 단계는 라운드테이블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2) 발표·토론·협의 단계

다음으로 발표·토론·협의 단계에 해당하는 6회차는 1회부터 5회까지의 라운드 테이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 주민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중간 점검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스템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을만들기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거창군 창조행정 실현을 목표로 실천전략 방향을 수립할 것을 논의하였다.

7회차는 거시적 관점에서 거창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마을만들기 전략분야로 설정하였던 로컬푸드, 문화·복지, 귀농·귀촌, 마을개발, 도농교류에 대한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참석자 전원의 의견이 골고루 적용되도록 하였다. 본 토론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기 전인 발굴단계와 사업이 종료된 후, 관리·운영단계가 거창군의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회차의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연구결과인 ‘거창군 협업형 마을만들기 5대 핵심분야’를 계획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 순환기능 강화하기

현재 거창군은 ‘거창푸드종합센터’를 2013년도에 개소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핵심참여주체의 농산물 생산-소비 순환체계를 갖춘 푸드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식품가공·판매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안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도와줌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하고자,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순환적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치중되었던 사업추진 구조에서 마을과 주민의 여건을 고려한 가공, 유통·판매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민간지원조직에서의 전문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통합정책 및 제도 수립, 생산기반 강화 및 가공식품 활성화, 유통·판매 고도화, 전략적 홍보마케팅 실행의 4가지 세부실천전략을

Integrated policies and systems establishment	Composition of exclusiv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 Revitalizing project linkages based on the rural circulation structure.
	Revitalizing NGO support systems	· Heightening the support of professionals. · Maintenance and operation consulting.
▽		
Strengthening production foundation and revitalizing processed products	Strengthening production foundation	· Strengthening the support of high and small income farmers. · Production support of village for a systemical planning and production.
	Revitalizing processed products	· Supporting availability of operation facilities. · Diversifying processed products · Promoting manufacturing zones.
▽		
High distribution and sales	· Branding local foods in Geochang. · Organizing local food consumers in Geochang. · Linking interchange between cities and countries.	
▽		
Strategical PR marketing	· Revitalizing sales through on-line. · Supporting the sales through off-line. · Preparing the product maintenance system.	

Figure 5. Strengthening the circulation of local foods

세웠다(Figure 5 참조).

(2) 문화·복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부분 농촌지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의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으로써 마을만들기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 다양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환경, 경제활동, 문화·여가활동 등 다양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발굴사업의 활성화, 육성 및 지원 다양화, 지원·관리

Table 7. Supports of revitalizing culture and welfare communities

Revitalizing development projects	Fostering and diversifying supports	Repairs of support and maintenance systems
· Launching community activities · Creating multi-economic activities	· Strengthening activity capacities · Support to revitalize the community · Support of building spaces	· Establishing operation, guidance and support systems. · Data-processing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methods

제도 준비를 계획하였다(Table 7 참조).

(3)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최근 20년 동안 거창군의 인구가 전국 및 경남지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을 보면 1992년 전국 대비 0.17%와 경남 대비 2.02%의 비율에서 2011년에는 각각 0.12%와 1.91%로 감소하였다(Geochang, 2013). 이처럼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농촌지역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Gukjenews, 2015). 귀농·귀촌 인구유입의 지속적인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거창군의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주택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보다 통합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인구가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진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향후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유치홍보 강화, 정착지원 다양화, 주민화합 도모, 지원·관리제도 준비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사업을 구상하였다(Table 8 참조).

Table 8. Facilitating agricultural and rural villagers

Strengthening attraction and PR	Diversifying settlement support
· Preparing methods to host and promote demanders-centered public relations · Establishing multiple marketing strategies	· Preparing methods to cultivate basic capacities for seekers. · Expanding settlement support projects.
Promoting residents' co-operation	Maintaining support and maintenance systems
· Preparing programs of settling conflicts.	· Preparing sustainable settlement support systems. · Data-processing methods of maintenance.

(4) 마을개발 활성화 지원

거창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라운드 테이블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마을개발 사업은 상당수가 지자체 담당부서의 추천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을여건과 주민역량을 반영한 단계적 사업추진 방식(예비-진입-발전-자립)을 도입하여 사업의 성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지속적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Table 9 참조).

Table 9. Supports of each phase of capacities of the development projects of rural villages

Contents	Relevant projects and support means	Targets
Preliminary ph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engthening previous capacities Planning and establishing the development of villages. Extending experiences of the relevant projects. 	Required
▽		
Enter ph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eative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Middle-scaled projects of culture, welfare, tourism and economy, 	Preliminary phase completed districts
▽		
Development ph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eative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total) Large-scaled projects on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each province. 	Enter phase completion and evaluation
▽		
Independence ph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pports to revitalize the completed districts Revitalizing human character education S/W implementation 	Final project place

(5)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Rural Research Institute(2008)은 도농교류를 도시와 농촌 간의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사람, 상품, 정보, 자본, 서비스 등을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거래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련된 마을과 지역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마을만들기의 최종단계로 볼 수 있다. 즉, 로컬푸드, 마을개발, 문화·복지 공동체 분야 사업들을 기반으로 직판장, 농가레스토랑, 농촌체험, 군단위 농업을 묶은 6차 산업화의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창군에서 추진된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도농교류의 거점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별 농가형, 마을형,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이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홍보·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함을 제시한다(Table 10 참조).

8회차는 유사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정책 및 활동사례 학습을 통해 거창군 마을만들기의 추진방향 모색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선진견학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진안군의 경우, 담당 공무원과 주민 모두 10년간 마을만들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완주군의 경우, 마을만들기를 위한 전문가 영입에 따라 계획적이며 실천적인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지인 거창에서도 마을만들기의 주체가 '사람'이 핵

Table 10. Supports to revitalize interchanges between cities and countries

Farm family-typed projects	Village-typed proj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pports of individual farm family and group projects. Projects for the production foundation of local fo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jects of promoting real experience villages through local resources. Projects of promoting operation facilities.
Network-typed projects	PR, maintenance and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kage projects of village resources Program linkage projects Facility linkage proj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gram development Maintenance & operation support Sustainable maintenance systems

심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주제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9회차에서는 거창군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10년간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주체를 계획하였다. 따라서 앞선 이론고찰의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에서는 마을만들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육성하며, 전문가는 자립을 위한 조직구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거창군 협업형 마을만들기의 3대 파트너십 형성'으로 정리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하기

마을만들기를 위한 행정의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총괄전담조직의 신설,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협의회 운영을 제시할 수 있다(Table 11 참조). 이는 중앙부처의 정책기조의 이해와 대응을 위한 시행채널의 역할, 마을만들기의 평가·결정·논의를 위한 심의기구 운영, 각 개별 부서와의 업무조율 및 협업, 중간지원조직을 위한 민간 마을만들기 센터의 운영지원, 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Table 11.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 through administration

Building new exclusive organizations	Supports of projects of the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Running conven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ilding new exclusive organizations Building new support organizations of the construction of civic vill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public recruit of the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running pilot projects. Revitalizing the support and maintenance (establishing DB and consul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Round table conference Consulting, evaluation, review organization Conventions of collecting opinions by residents and companies

② 통합교육을 통한 참여주체 역량강화

거창 협업형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대상을 주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마을리더, 관련 공무원, 귀농·귀촌 인구, 활동가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교육의 성과를 주체간에 서로 공유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대학을 통한 통합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을대학은 크게 주민마을학교, 귀농귀촌학교, 지역활동가 교육원으로 구분된다. 주민마을학교는 주민 역량강화 및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귀농귀촌학교는 거창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지역활동가 교육원은 마을만들기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③ 민간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마을만들기는 일정수준의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주민과 교류를 통해 마을을 성장시킴으로써 협업형 마을로 정착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행정조직은 순환보직 제도로 인해 지속적이며 일관된 사업 운영 및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 간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을만들기의 진행과정 중 육성단계에 해당하는 마을이 많은 거창군의 경우, 발굴단계와 관리 및 자립단계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중간지원조직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총괄기획, 교육지원, 마을사업지원, 홍보지원과 같은 전문분야를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은 한 마을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점적인 활동을 시작으로 마을과 마을, 마을과 단체 등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보다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전문가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되는

민간네트워크를 통해 거창 협업형 마을만들기를 운영하여야 한다(Figure 6 참조).

마지막 10회차는 1회부터 9회까지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을 종합하여 거창 마을만들기의 방향과 향후 10년 마을만들기 전략에 대해 최종 논의하였다. 이로서 거창군 마을만들기는 획일화 되고 규정지어진 형태의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스템의 마을만들기로 정의하였다.

이로써 6회부터 10회까지의 발표·토론·합의 단계를 거친 라운드 테이블의 결과로 거창군 마을만들기는 5대 핵심분야 설정(7회차 결과)과 3대 파트너십 형성(9회차 결과)을 계획하였다. 발표·토론·합의 단계 중 7회차에서 진행한 퍼실리테이션 기법은 거창군 마을만들기 전략분야에 대한 참석자 전원의 각자 다른 의견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방법은 다소 경직될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의 방식의 분위기를 풀어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잠재된 다양한 생각들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라운드 테이블 진행방식은 지금까지의 농촌 마을만들기의 주된 문제점으로 제기된(Song, 2006) 하향식 개발사업에 의한 지나친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방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역량이 악화되던 문제,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이는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마련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3. 종합고찰

본 연구에서는 협업형 마을만들기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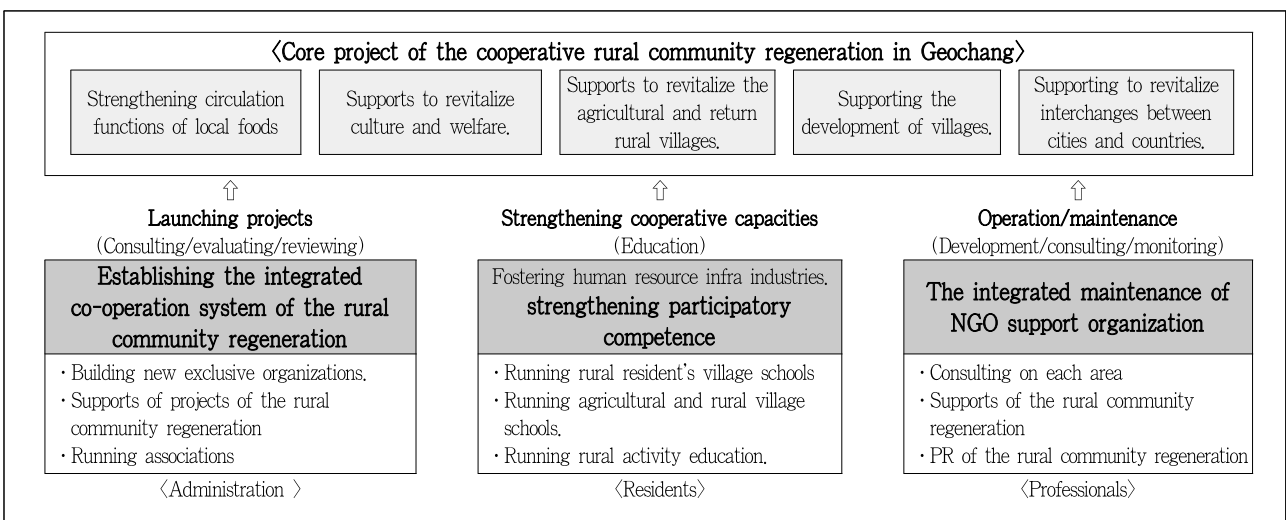


Figure 6. Basic mapout of the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in Geochang.

기 앞서 행정리 이장단, 마을주민, 관련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행정리 이장단의 마을만들기를 위한 선호하는 추진사업 설문결과, 크게 농산물 유통, 마을개발, 복지, 귀농·귀촌 지원과 같은 부분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여 거창군의 마을만들기 방향설정 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마을주민과의 면담을 종합해 본 결과, 거창군을 이끌어갈 핵심리더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많아, 향후 거창군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역 리더 선정 및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격적인 라운드 테이블은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1회부터 5회는 조사·연구 단계로 사전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거창군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 6회부터 10회는 실질적인 거창군 마을만들기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하였다. 10회에 걸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한 거창군의 협업형 마을만들기 실천전략은 행정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집단, 지역주민의 의견공유와 토론,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행정 지시에 따른 주민교육과 중간지원조직인 컨설팅 전문가에 의해 마을만들기 계획을 진행했던 외형적 상향식 마을만들기에서 한 단계 진화한 협업형 마을만들기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라운드테이블 방식을 통해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EU의 농촌지역정책인 LEADER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통합적 지원, 상향식 방식, 다

년계획(Park, 2002)에 근접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행정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지역주민이 모두 직접적으로 참여한 다중-주체적이며, 다면적인 과정을 통한 마을만들기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목적 및 의의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Table 12 참조).

IV. 결론

본 연구는 지난 농촌개발정책 및 마을만들기가 가지는 하향식 시행구조, 갈등구조 발생, 차별화 되지 않은 사업결과 등의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의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 거창군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10회에 걸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였다. 관련 공무원, 총괄계획가, 주민, 현장 활동가, 전문 연구원 등이 모여 현장조사와 토론, 공유, 발표를 통해 거창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창군만의 협업형 마을만들기 실천전략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립한 거창 협업형 마을만들기는 마을(또는 단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 및 역량의 수준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발전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서 나타나는 준비되지 않은 마을이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이후 시설이 방치되거나, 특정마을 혹은 리더에 사업과 교육이 집중되거나, 주민들이 사업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획일화되거나 규정지어진 형태의 마을만들기가 아닌 여건과 요구, 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마을만들기로 다양한 형태의 조합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사업지원체계, 교육지원체계, 민간협업체계를 재설정하여 단계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라운드테이블의 연구 결과 제안 이후, 거창군에서는 마을만들기를 통합지원하는 마을만들기과가 개설되었으며, 소액 사업부터 지원하는 거창형 단계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시작되었고, 중간지원조직을 논의하는 공문화 포럼이 개최되었다(2015년 8월 기준).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연구방법으로 채택한 라운드 테이블도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원과 운영체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보다 거창군이 지니고 있는 부서별 중복사업, 리더중심의 교육지원, 중간지원조직 부재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점에 관한 논의가 다소 중심이 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각 마을별 차별화 된 지원과 관리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며, 각 지역 주민 및 관련 공무원 등의 역량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여러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의

Table 12. A comparison of the cooperative rural community regeneration in Geochang

Section	The past	The present	The future
Implementing organization	Top-down development	Each phase type	Independence-typed
Implementation methods	Led by the administration	Rural resident participation-led administration	Residents-led support systems
Budget structu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Government supports and individual charges	Government supports + individual charge + individual contribution
Roles of organizations of NGO supports	Passive	Partial participation	Autonomous participation
Good poin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ffective project linkages Goals-oriented growth vill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hancing residents' sentiments, Multi-projects
Weak poin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ccurrence of alienated villagers Uniform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pporting and maintaining in accordance with diversity, The emergence of the difficulty in preparing systems and the differences in capacities of participants,

협업형 시스템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Geochang(2013) Geochang province, Long-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2013-2022.
2. Gukjenews(2015.07.22) Geochang province, Exploration of the advanced areas of agricultural and farming universities and colleges.
3. Kim, H. S.(2000) A critical study on Saemaul Undong (new community movement) as a modernization project : Focused on the 1970s,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2(2): 21-38.
4. Kim, S. J.(2009) A Study on the Practical Strategies for Community Building, Ph. D. Dissertation, Anyang University, Korea.
5. Lee, H. J.(2009) Changes in rural policy paradigm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A study based on "Integrated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19(1): 7-47.
6. Moon, J. H.(2012) A Study of Making Rural Village by Participation of Residents, Master Thesis, Gwangju University, Korea.
7. Nam, G. G.(2000)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평가와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韓國國際政治學會 94(-): 13-15.
8. OECD(2006) The New Rural Paradigm: Policies and Governance, Paris: OECD.
9. Oh, H. S.(2008) A change of strategies of developing EU's rural communities, Rural and Marine Village and Environment 98: 81-94.
10. Park, J. D.(2002)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bottom-up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11. Rural Research Institute(2008) Methods of Facilitating Urban and Rural Community Interchange to Establish Co-operation Relationships with Civil Bodies.
12. Seo, J. H.(2006) The study on impedimental factors in green and experiential tourism of farm village project,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16(2): 89-119.
13. Seo, J. H.(2013) A study on direction for rural community building through the case of Gurye-County, Korea Society of Rural Planning 19(1): 33-41.
14. Shin, J. H.(2011) A Study on the Process of Community Building, Master Thesis, Gangnam University.
15. Song, M. R.(2006) A policy change and recent trend of the construction of villages-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a rural communities good to live in." -, Architecture History 15(4): 137-160.
16. Won, J. H.(2013) Factors Affecting the Evaluation of the Resident-Participatory Community Design : Focused on the Residents' Perception about 'the Project of Human Town in Seoul',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Received : 20 August, 2015

Revised : 8 September, 2015 (1st)

2 October, 2015 (2nd)

Accepted : 2 October, 2015

3인익명 심사필